

한국 대학생의 용서 빌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종효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용서빌기 수준과 특징, 용서빌기와 관련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서빌기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이다. 용서빌기는 피해자의 용서를 도울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깨어진 신뢰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를 위해 24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고 용서빌기 척도를 통해 용서빌기의 수준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감, 도덕 판단력,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용서빌기 행동과 용서빌기 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일수록, 공감능력이 발달할수록, 피해자를 위한 용서빌기 행동(사과, 화해, 보상 등)을 한 경우와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가해자가 믿는 경우, 가해자의 용서빌기 수준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용서빌기의 교육적 활용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용서빌기, 공감, 도덕 판단력, 용서빌기 행동

국내·외적으로 용서 연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용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용서하기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 원한을 없애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도덕적 과정이다(Enright, 2001). 피해자의 입장에서 용서하기는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갖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줄여줄 수 있기에 적응적이고 유용한 심리과정이다(김광수, 2001, 2004; 박종효, 2003, 2007; 오영희, 2004, 2008; Enright and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McCullough, Bellah, & Kilpatrick, 2001; Worthington, 2003, 2005).

용서의 효과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용서하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용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가해자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가해자와 무관하게 피해자 개인 내적 과정(intra-personal psychology)으로서 용서하기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용서하기는 가해자의 행동,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보상하려는 용서 빌기 행동과 밀접하

게 관련을 가지고 일어난다. 피해자는 자신이 아무리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의심한다(김기범, 임효진, 2006; 오영희, 2008, 이경순, 2008; Worthington, 2003).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해자가 온전히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는 적극적 의지와 동기가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깨졌던 인간관계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비로소 용서가 완성될 수 있다.

Sandage와 그의 동료들(2000)은 용서 빌기(seeking forgiveness)를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 잘못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수용하고 배상하고 보상하려는 동기라고 정의하였다. 용서 빌기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의 관점을 채택하고 공감해야 하며, 변명하고 합리화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배상하려고 노력해 한다.

Enright와 그의 동료들(2001)은 진정으로 용서를 받고 싶은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후회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없앨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해하고 표현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이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입장과 관점을 취할 때 용서 빌기가 가능하다.

용서빌기는 단순히 피해자가 베푸는 용서를 수용하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보상)지려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Sandage, Worthington, Hight, & Berry, 2000; Riek, 2010). 용서 빌기라는 심리적 구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 빌거나 구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이나 동기를 일컫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과정과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보상하려는 시도나 의도로 구성될 수 있다.

Gassin(1998)은 미국 중서부 대학교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조사를 통해 용서빌기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용서를 빌고 난 후에 학생들이 경험한 긍정적 효과는 잘못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relief), 사람에게 상처주지 않겠다는 결심, 그 사람과의 화해, 개인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음에 대한 경험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Gassin은 용서빌기는 개인적으로 성숙해 질 뿐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주며, 특히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nright(1996)는 용서빌기*를 4개의 국면, 20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부록 1 참조). 먼저 개방국면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그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후회한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식하면서,

* Enright(1996)는 용서빌기(seeking forgiveness) 대신 용서받기(receiving forgiveness)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저자가 정의하는 용서받기의 의미와 내용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와 행동 경향성을 포함하는 바,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용서빌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머릿속으로 재생하는 인지적 리허설(Cognitive Rehearsal)과정을 거친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상대방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인식하며 일반화된 자기비판 의식을 갖게 된다.

용서빌기의 두 번째 국면은 피해자에게 용서빌기로 결심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결심을 한 사람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이 시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죄하고 용서를 기다려야 한다.

용서빌기의 세 번째 국면은 용서받기 활동 과정이다. 가해자는 용서빌기를 위해 여러 가지 심리적 과정을 경험한다.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고, 피해자가 얼마나 약하고 여린 사람인지를 이해한다. 동시에 자신의 가해 행동을 바꾸거나 보상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가해자는 용서빌기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감내한다.

용서빌기의 네 번째 국면은 심화 과정이다. 가해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가해자는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중감을 인식하며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또한 가해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이해한다. 용서받는 과정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결심과 결단,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겨난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용서받기의 마지막 과정을 거치면서, 가해자는 과도한 죄의식과 후회로부터 벗어나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화해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기울인다.

용서빌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Sandage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2000)에 의하면, 종교나 연령은 용서빌기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었다. 하지만 용서추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에 성향이 낮을수록 용서 빌기 수준은 높아졌다. 연구자들은 용서 추론이나 자기에 성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는 관점채택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Witvliet와 그의 동료(2002)들은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심각하게 다치게 한 과거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실제 잘못된 사건을 떠올리게 한 후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하였는데, 첫 번째 상황은 피해자가 용서를 거절하고 원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상황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이다. 상상하는 회기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은 스스로 다양한 정서 상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단순히 그 잘못을 떠올리게 했을 때보다, 용서받는 것을 상상했을 때 정서적 자기 평가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가해자는 슬픔, 분노, 죄의식과 수치감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피해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상상할 경우, 가해자의 정서적 상태는 피해자의 상태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피해자가 용서를 거부하고 원한을 품고 있

다고 상상하면, 가해자는 각성, 슬픔, 두려움, 분노, 죄의식, 수치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졌다. 반대로 피해자가 용서하고 가해자와 화해한다고 상상할 때에는 가해자는 통제, 감사, 희망, 공감수준이 높아졌다.

용서받기는 가해자의 추론능력, 관점채택, 공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믿는지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용서받기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의 용서하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보면, 용서 받기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심각성, 가해 사건 이후 용서 받기 행동(사과, 설명, 보상, 화해 등)을 취했는지 등 용서받기 특성이나 상황(사건) 특수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해주거나 사과할 때, 피해자는 용서를 더 쉽게 할 수 있다(McCullough et al., 1997; McCullough, Rachal et al., 1988; Takaku, 2001). 또한 가해자의 위반행동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Girard & Mullet, 1997; McCullough et al., 2003), 그리고 가해자가 가족인지 여부(Hoyt, Fincham, McCullough, Maio, & Davila, 2005) 등도 용서받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서받기 특성은 용서받기의 대상이 가족인지, 잘못을 한 후 용서받기 행동(설명, 사과, 보상, 화해)을 시도했는지,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믿는지, 용서받고 싶은 동기가 있는지 등이다. 이러한 용서받기 특성이 용서받기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용서받기의 수준과 용서 받기 특성, 용서받기 수준과 특성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공감, 도덕적 판단력)과 용서받기 특성(용서받기 대상, 용서받기 행동, 피해자의

용서 기대)이 용서받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용서받기 척도는 타당하고 신뢰로운가?

둘째, 한국 대학생의 용서받기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용서받기 수준은 성별이나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 대학생이 용서받기 특성은 어떠한가? 용서받기 대상, 사건, 행동은 무엇이며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믿는지, 용서받고 싶은 동기 등은 어떠한가? 특성에 따라 용서받기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용서받기 수준은 심리적 특성(공감, 도덕적 판단력)과 용서받기 특성(피해자와의 관계, 용서받기 행동, 피해자의 용서 기대)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는가?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대전, 대구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 240명(여학생 173명, 72.1%)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교육심리나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며 평균연령은 22.13세(SD=2.80)이다. 연구대상 학생의 전공을 계열별로 나누어 보면 인문사회계열 53.3%, 자연이공계열 13.3%, 사범계열 25.4%, 예체능계열 6.7%, 기타 0.2%로 구성되어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용서빌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용서빌기, 공감과 도덕 판단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 용서빌기

용서빌기 척도는 Enright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용서빌기 심리과정(1996)을 토대로 연구자와 Enright 교수가 제작하였다(부록 2 참조). 용서빌기 척도는 특성 문항(10문항)과 평가 문항(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서빌기 특성 문항은 응답자가 피해나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가족, 친구 등), 응답자가 피해를 준 후, 피해자에게 사과, 잘못에 대한 보상, 설명, 화해 등 용서빌기 행동을 시도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기대하는지, 용서를 받고 싶은지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용서빌기와 관련하여 어떤 잘못이나 상처를 주었는지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용서빌기 평가 문항은 Enright의 용서받기에 관한 20단계를 대표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 '약간/때때로 그렇다(2)' 그리고 '항상/확실히 그렇다(3)'의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용서빌기 척도 점수는 20개의 평가문항 중 첫 번째 문항만 역산하고 나머지 문항은 그대로 사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용서빌기 척도 점수는 최소 20점에서부터 최대 60점까지 나올 수 있다.

용서빌기 척도는 연구자가 일차 번역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교육심리학 전공 박사 2인이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검토한 후 연구자와 검토자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용서빌기 척도의 α 신뢰도 계수는

0.87로서 양호한 편이었다. 용서빌기 척도의 타당화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나. 정서적 공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척도는 설현수, 김동민, 이수현(2006)이 타당화한 정서적 공감척도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Mehrabian과 Epstein의 정서적 공감척도(emotional empathy scale, 1972)를 타당화하였다. 한국인 대상 신뢰도 정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원저자가 보고하는 신뢰도 정보에 의하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79였고 반분신뢰도는 .84, 2주 간격 재검사 신뢰도는 0.85였다. 한국어판 정서적 공감척도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감척도의 α 신뢰도 계수는 0.62이었다. 공감척도의 신뢰도 지수가 다소 낮은 편이어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도덕 판단력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용린(1994, 2011)의 한국어판 도덕 판단력 검사(이하 KDIT)를 사용하였다. KDIT는 Rest(1979)의 DIT 검사를 한국의 청소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로서 국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도덕 판단력 검사이다. KDIT 점수는 Kohlberg 도덕발달단계에 상응하는 1~6단계까지의 단계별 점수와, 인습이후 도덕 판단력(5단계와 6단계 도덕 판단력) 반응이 전체 반응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P(%)점수가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판단력 점수로서 P(%) 값을 활용하였다. KDIT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문용린(2011)에 제시되어 있다.

3.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용서빌기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용서빌기 수준의 집단차이와 특성별 용서빌기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용서빌기 수준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공감, 도덕적 판단력) 간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용서빌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공감이나 도덕적 판단력의 심리적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용서빌기 특성 변인이 추가적으로 용서빌기 수준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용서빌기 척도의 예비 타당화 과정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척도의 제한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한국 대학생의 용서빌기 수준과 성차를 탐색하였다. 또한 용서빌기와 공감, 도덕 판단력 간의 관련성, 용서빌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용서빌기 특성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1. 한국어 용서빌기 척도의 예비타당화 결과

용서빌기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척도의 구인 수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기 위

하여 실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이겐 값이 1이 넘는 요인은 5개 추출되었지만 첫 번째 요인의 아이겐 값이 6.15로 나머지 4개 요인의 값(1.06~2.26)보다 현저히 컸으며 첫 번째 요인의 설명량도 30.75%로 다른 요인의 설명량(5.32~11.32)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용서빌기 척도는 1개의 구인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용서 구인을 1개로 설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량은 앞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용서빌기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측정모형 적합도는 $\chi^2 = 367.79$ $df = 51$, $p < .001$ 이었고, CFI = .86, GFI = .85, RMSEA = 0.08로 일부 지표에서 적합도가 떨어지지만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측정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20개 문항 중에서 3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38을 넘었다. 3개 문항은 11번, 12번, 15번 문항으로 문항의 회귀계수 값은 .15에서 .22까지 범위였다.

세 문항을 제외하고 구성된 용서빌기 척도점수가 용서빌기 수준 및 집단 차이, 용서빌기 특성과 용서빌기 수준 간의 관련성, 용서빌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문항을 추가한 결과와 제외한 결과가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또한 20개 문항은 용서빌기의 각 단계를 대표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용서빌기 척도 점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2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용서빌기 척도의 본격적인 타당화 과정과 문항 수정은 추후 과제에 포함하고자 한다.

2. 용서빌기 수준 및 집단 차이

용서빌기 척도의 제한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용서빌기 점수는 평균 41.42점($SD=7.53$)이었다. 최저 점수는 23점이었고 최대점수 58점이었다. 문항 수가 총 20문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수는 20점에서부터 60점이고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점수는 점수 분포 상 중간수준이다.

용서빌기 점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M=43.46$, $SD=7.67$)이 여학생($M=40.63$, $SD=7.3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65$, $p<.01$). 학생의 전공별로 용서빌기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집단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예체능계열($M=42.47$, $SD=7.61$), 인문·사회계열($M=41.88$, $SD=7.50$), 자연·이공계열($M=41.58$, $SD=7.45$), 사범계열($M=39.83$, $SD=7.58$) 순으로 나타났다.

3. 용서빌기 특성과 용서 수준 차이 분석

용서빌기 특성 문항을 기초로 용서빌기의 대상은 누구인지, 용서를 빌고 싶은 사건은 무엇인지, 용서빌기 관련 행동 여부, 피해자의 용서에 대한 가해자 기대, 용서빌기 동기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용서빌기 특성별로 용서빌기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용서빌기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이 상처를 주었다고 응답한 대상은 학교친구(34.5%), 부모님(30.0%), 이웃이나 학교 밖에서 만난 친구(15.1%), 형제자매(11.3%)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학생들이 저지른 잘못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경우, 부모님과 의 말

다툼,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음, 부모님의 요구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거절함 등이었다.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형제자매의 물건을 허가 없이 함부로 가져가서 쓰거나 망가트린 것, 약속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 한 것 등을 언급하였다. 학교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 학급(학교) 친구를 놀리거나 욕하고 따돌렸던 학교폭력 경험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성 친구 간에는 배신이나 거짓말, 약속 불이행, 다른 이성친구와 사귀기 등을 가해행동으로 제시하였다.

피해 대상을 가족 여부로 나누어 용서빌기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가족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의 용서빌기 수준($M=42.61$, $SD=7.34$)이 가족이외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용서빌기 수준($M=40.50$, $SD=7.5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4$, $p<.05$).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이 잘못을 한 후에 피해자에게 사과나 설명을 했는지, 화해나 보상하려고 시도했는지 등의 **용서빌기 행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과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54.6%이었고, 잘못을 보상하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한 대학생도 73.3%,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63.3%,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7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 가지 용서빌기 관련 행동 중 적어도 1개 이상 시도했던 학생은 90.4%였다. 용서빌기 관련 행동을 시도한 학생의 용서빌기 점수($M=42.05$, $SD=7.18$)는 그렇지 않은 학생의 용서빌기 점수($M=35.61$, $SD=8.4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02$, $p<.001$).

셋째, 연구 참여자에게 잘못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지(피해자 용서 기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1.1%였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

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였다.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따라 용서빌기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용서빌기 점수($M=42.70$ $SD=6.80$)가 용서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의 용서빌기 점수($M=39.40$, $SD=8.2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3.36$, $p<.001$).

넷째, 피해자가 연구 참여자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거나 피해자에게 연구 참여자가 용서를 받고 싶은지(용서빌기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75.3%)이 용서 받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용서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24.7%)보다 많았다. 용서 받고 싶은 학생의 용서빌기 점수($M=43.41$, $SD=6.64$)는 그렇지 않은 학생의 용서빌기 점수($M=35.28$, $SD=6.8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8.05$, $p<.001$).

4. 용서빌기 수준의 영향 요인 분석

용서하기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생의 용서빌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공감과 도덕

판단력, 그리고 용서빌기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용서빌기 수준은 도덕 판단력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r=0.02$, n.s.) 공감과는 정적 관련 ($r = 0.28$, $p < .001$)이 있었다.

용서빌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용서빌기 점수이며, 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는 도덕 판단력과 공감의 심리적 특성변인과 피해자가 가족인지 여부, 용서빌기 관련 행동의 시도 여부,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믿는지 여부 등의 용서빌기 특성변인을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용서빌기 동기(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받고 싶은지 여부)는 용서빌기 수준과 이론적으로 밀접하게 관련 있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 ($r=.47$, $p<.001$)을 보여서 분석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수로서 회귀식에 포함되었다.

용서빌기 특성 변인은 용서 받고 싶은 대상이 가족인지(가족인 경우 1, 아닌 경우 0), 잘못을 저지른 후에 사과, 보상, 화해, 설명 중 한 가지라도

<표 1> 용서빌기의 회귀분석 결과

변인	1단계		2단계	
	β	t	β	t
성별(여자=1)	-.17	-2.62**	-.19	-3.11**
나이	.09	1.37	.09	1.53
도덕 판단력	-.02	-0.26	-.00	-0.06
공감	.32	5.01***	.28	4.60***
용서대상(가족=1)	-	-	.10	1.64
용서빌기 행동	-	-	.19	3.10**
피해자의 용서 기대	-	-	.13	2.10*
F	$F(4, 231) = 8.16, p<.001$		$F(7, 228) = 8.80, p<.001$	
R^2	$R^2 = .12$		$R^2 = .21$	

* $p<.05$, ** $p<.01$ *** $p<.001$

용서빌기 행동을 했는지(용서빌기 행동을 하나라도 한 경우 1, 용서빌기 행동을 한 가지도 안한 경우 0),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믿는지(용서했다고 믿는 경우 1, 아닌 경우 0)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용서빌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공감이었다. 남자($\beta = .17, p < .01$)이면서 공감 능력($\beta = .32, p < .001$)이 발달한 경우, 용서빌기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용서빌기 특성 변인이 추가된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성별과 나이 외에도 용서빌기 행동(사과, 설명, 보상 등)을 하는 경우($\beta = .19, p < .01$),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beta = .13, p < .05$), 용서빌기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응답자의 나이, 도덕 판단력 수준, 피해자가 가족인지 여부는 용서빌기의 유의한 설명 변수가 아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비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최근 들어 용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용서하기에 관한 이론과 연구가 활발한 반면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용서를 받거나 빌기,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실정이었다(Enright, 2001; Gassin, 1998; Worthington, 2005).

개인내적 심리과정(intra-personal psychology)으로서 피해자의 용서하기는 그 유용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

하는 일련의 용서빌기 행동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용서하기와 가해자의 용서빌기가 함께 어울릴 때 비로소 화해라는 바람직한 상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용서빌기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관심은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용서빌기는 용서하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장이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도덕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사건 이후 가해자의 행동과 반응은 용서 빌기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Ashy, Mercurio, & Malley-Morrison, 2010; Finkel, Rusbult, Kumashiro & Hannon, 2002; Howell, Dopko, Turowski, & Buro, 2011; Worthington,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경험하는 용서빌기의 수준과 특성, 용서빌기 수준과 관련 있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용서빌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 대학생은 점수 분포(20~60점)로 살펴보면, 자신이 잘못된 사건에 대해 중간 수준(41점) 정도로 용서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용서빌기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용서빌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용서하기 연구(박종효, 2006)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용서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남자대학생이 피해자로서 용서도 더 잘 할 뿐 아니라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더 잘 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 수준의 성차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정성진, 서경현(2011) 연구에서는 한국대학생의 용서수준이 성별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고 Enright와 Zell(1989)에서도 용서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Finkel와

그의 동료 연구(2002)에서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용서를 더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용서받기 뿐 아니라 용서하기의 성차나 집단차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용서받기 특성과 관련해서, 90% 이상의 대학생이 잘못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사과, 설명, 보상, 화해 등의 친사회적 용서받기 행동을 시도했다고 응답했다. 용서받기 수준에 비해 용서받기 행동 비율은 높다고 판단된다. 용서받기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며 도덕적 비난으로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Bassett, Bassett, Lloyd, & Johnson, 2006; Howell, Dopko, Turowski & Buro, 2011; Riek, 2010). 이러한 용서받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이 보고한 용서받기 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받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용서받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본 결과, 남자일수록, 피해자에게 공감할 잘 할수록, 용서받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용서받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서받기에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바, 진정한 용서받기와 용서받기 과정에서 반드시 요청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보인다(Batson & Moran, 1999; Gassin, 1998; Toussaint & Webb, 2005; Worthington, 2003).

용서받기 특성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설명하는 등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했거나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고 가해자가 믿는 경우에 가해자의 용서수준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용서를 구하거나 비는 행동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대인관계 질이 중요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려는 친사회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McCullough et al., 1997; McCullough, Rachal et

al., 1998; Takaku, 2001).

용서받기 수준과 용서받기 행동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r=0.26, p<001$)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받기 행동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용서받기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에 용서받기 수준이 높을수록 용서받기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현재와 같이 횡단 자료의 상관연구에서는 두 변인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다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용서받기가 도덕적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도덕 판단력은 용서받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Sandage et al., 2000)에서는 용서추론 능력이 높을수록 용서받기 수준이 높다고 나온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 판단력 수준이 높다고 해서 용서받기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용서 추론과 도덕적 판단력이 상이한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도덕적 판단력보다는 용서추론 능력이 용서받기 구인에 더 근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용서받기 수준을 높이는 기여하는 인지적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기도 다른 친사회적 행동(봉사, 기부, 자선 등)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도덕적 행동이다. 이러한 도덕적 행동은 단순히 도덕적 지식이나 판단보다는 도덕적 습관과 행동, 의지 등이 더욱 중요하게 관련 있다고 보인다(Eisenberg, 2006; Juujarvi, Myyry, & Pessa, 2010).

본 연구는 용서받기와 함께 우리 학생이나 성인이 학습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자

가치로서 용서빌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예비적 결과는 용서빌기가 일련의 심리과정으로서 개인 차이가 있다는 점, 이러한 개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용서빌기 수준은 개인의 용서빌기 특성과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용서하기가 가해자의 용서빌기와 만나, 더 큰 용서, 화해로 나아가는 실천적 지혜를 시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Ashy, Mercurio, & Malley-Morrison, 2010; Zechmeister & Romero, 2002).

이러한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서빌기 척도는 아직까지 표준화와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타당화 과정으로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척도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용서빌기 척도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표준화 및 타당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연구 대상으로 표집된 수강과목의 성격상 여학생의 비율이 많았다. 따라서 대표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표집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생과 성인 집단이 포함된 보다 확장된 연령집단과 인구학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표적인 표집을 구해서 반복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용서빌기와 관련하여 탐색한 심리적 특성(공감, 도덕적 판단력) 변인과 용서빌기 특성(피해자와의 관계, 용서빌기 행동 여부, 피해자의 용서 기대 등) 변인은 용서 빌기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성격요인은 용서하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용서빌기나 자기용서와도 모정의 관련성이 있다(이아롱, 구재선, 2009; Chiamello, Munoz, Sastre, & Mullet, 2008; Emooms, 2000)고 가정되는 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용서빌기 개념은 미국적 문화와 맥락 속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인(대학생)이 어떤 의미로 용서빌기를 이해하고 응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용서하기와 용서빌기가 한국 문화와 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어떤 토착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오영희, 2011).

참 고 문 헌

- 김광수(2001). 용서에 대한 고찰과 교육적 적용. *교육학연구*, 39, 1-24.
- 김광수(2004). 경험과학적 용서 연구의 반성적 고찰과 제언. *교육심리연구*, 18, 33-49.
- 김기범, 임효진(2006). 대인관계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19-33
- 문용린(1994).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진단을 위한 연구: 도덕판단력 진단검사(DIT) 표준화 연구.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보고서*. 미간행 연구물.
- 문용린(2011).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집문당*.
- 박종효(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301-321.
- 박종효(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

- 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 265-282.
- 박종효(2007). 한국형 아동·청소년의 용서심리검사(EFI-C)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1, 265-281.
- 설현수, 김동민, 이수현(2006). 정서적 공감척도의 타당화와 차별기능분항 탐색. *교육평가연구*, 19, 179-201
- 오영희(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 59-77.
- 오영희(2008).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 1045-1063.
- 오영희(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 799-813.
- 이경순(2008). 용서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 237-252.
- 이아롱, 구재선(2009). 용서와 성격특성의 관계: 누가 용서를 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와 성격*, 23(3), 89-105.
- 정성진, 서경현(2011). 대학생의 특성용서, 상태용서, 용서 결정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2), 147-169.
- Ashy, M., Mercurio, A. E., & Malley-Morrison, K. (2010). Apology,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n ecological world-view framework.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8, 17-26.
- Bassett, R. L., Bassett, K. M., Lloyd, M. W., & Johnson, J. L. (2006). Seeking forgiveness: Considering the role of moral emotion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4, 111-124.
- Batson, C. D., & Moran, T. (1999). Empathy-induced altruism in a prisoner's dilemma.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909-924.
- Chiaromello, S., Munoz, Sastre, M. T., & Mullet, E. (2008). Seeking forgiveness: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personality and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383-388.
- Eisenberg, N. (200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Emmons, R. A. (2000). Personality and forgivenes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er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56-178). New York: Guilford Press.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al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6.
- Enright, R. D.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Washington, DC: APA LifeTool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Zell, R. L. (1989). Problems encountered when we forgive one another.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8, 52-60.
- Finkel, F. J., Rusbult, C. E., Kumashiro, M., & Hannon, P. A. (2002). Dealing with betrayal in close relationships: Does commitment promote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956-974.
- Gassin, E. A. (1998). Receiving forgiveness as moral education: a theoretical analysis and initial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1), 71-87.

- Girard, M., & Mullet, E. (1997). Forgiveness in adolescents,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 209-220.
- Howell, A. J., Dopko, R. L., Turowski, J. B., & Buro, K. (2011). The disposition to apologiz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509-514
- Hoyt, W. T., Fincham, F. D., McCullough, M. E., Maio, G., & Davila, J. (2005). Responses to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in families: Forgiveness, forgiveness, and relationship-specific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375-394.
- Juujarvi, S., Myyry, L. & Pessa, K. (2010). Does care reasoning make a difference? Relations between care, justice and dispositional empath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9*, 469-489.
- McCullough, M. E., &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01-610.
- McCullough, M. E., Fincham, F. D., & Tsang, J. (2003). Forgiveness, forbearance, and time : The temporal unfolding of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540-557.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21-336.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ment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4)*, 525-543.
- Rest, J. R. (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iek, B. M. (2010). Transgression, guilt, and forgiveness: A model of seeking forgiven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8*, 246-254.
-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Hight, T. L., & Berry, J. W. (2000). Seeking forgiveness: Theoretical context and an initial empirical stud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 21-35.
- Takaku, S. (2001). The effects of apology and perspective taking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A dissonance-attribution model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494-508.
- Toussaint, L., & Webb, J. R. (2005).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nections between forgivenes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349-362). New York, NY: Routledge.
- Witvliet, C. V., Ludwig, T. E., & Bauer, D. J. (2002). Please forgive me: Transgressors'

emotions and physiology during imagery of seeking forgiveness and victim response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1, 219-233.

Worthington, E. L. Jr. (2003). *Forgiving and reconciling*. IL: Intersivity Press.

Worthington, E. L. Jr.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Zechmeister, J. S., & Romero, C. (2002). Victim and offender accounts of interpersonal

conflict: Autobiographical narratives of forgiveness and un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675-686.

1차 원고 접수: 2012.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05. 20

최종 게재 결정: 2012. 05. 21

An exploratory study of forgiveness-seeking and its correlates in Korean college students

Jong-Hyo Park

Department of Teacher Training,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evels and characteristics of forgiveness-seeking and its related variables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Forgiveness-seeking is defined as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an offender(s) who regrets his/her wrongdoing and seeks forgiveness from his/her victim(s). It encourages victims to forgive the offender, which helps recover the broken relationship and trust. A total of 240 college students in the current study were administered with three psychological instruments that each measure forgiveness-seeking, empathy, and moral judgment.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college students have a medium level of forgiveness-seeking, and the mean score of this behavior in male students is greater than that in female student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olleg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seek forgiveness if they are male, have a high level of empathy, believe in the victim's forgiveness, or have done moral (prosocial) deeds for the victim (i.e. apologizing, providing explanations, or making reparations) after the offense.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forgiveness-seeking were discussed.

Keywords: forgiveness-seeking, empathy, moral judgment, and forgiveness-seeking behavior

부 록 1

Enright 용서빌기 심리과정 모형 (Enright et al., 1996)

I. 개방국면

1. 거부: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일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음.
2. 죄의식(정의를 위반했음)과 후회(슬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도 있음.
3. 수치감 :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임. 가끔 당황스럽기도 함.
4. 에너지의 몰입(집중): 에너지가 죄의식이나 후회, 수치감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소진됨
5. 인지적 재연: 마음속에서 그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림
6.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함: 다른 사람이 내 행동 때문에 깊이 상처받았음을 깨닫고 나 스스로도 내 인생에서 오점을 남겼다는 생각에 상처받음.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비교함.
7. 피해자의 부정적 변화 : 나로부터 상처 받은 사람은 그 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심한 경우 내 행동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임.
8. 자아의식의 변화 :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음.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자신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비난이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음.

II. 결심국면

9. 마음을 바꿈 :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함.
10. 용서받고 싶다는 바람이 생김 :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내가 미안했어. 나를 용서해줘)라고 말하고 싶어 하며, 잘못을 바로 잡고 싶어함. 어찌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도록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음.
11. 용서 선물에 대한 통찰 :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용서는 선물이라는 통찰을 얻게 됨. 상대방이 용서라는 선물을 준다면, 나는 기꺼이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함.

III. 활동국면

12. 피해자 고려하기 :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봄. 상대방도 취약할 뿐 아니라 고통 받고 있으며, 어찌면 용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함.
13. 피해자에 대한 공감 : 그 사람의 상처를 같이 느끼며 이 상처는 나로 인한 것임을 인식함.
14. 측은지심 : 그 사람 함께 참을성 있게 기꺼이 고통을 견디어 줌.
15. 고통의 흡입 :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도록 허용해 줌. 이 상황에서 용서받기라는 내 자신의 어려운 결정을 수용함. 겸허하고 비참하게 참고 견딤

IV. 심화국면

16. 용서받기의 의미 발견 : 가해행동과 용서받기의 여정 속에서 의미를 발견함.
17. 용서받기의 어려움 회상 :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했던 것을 기억함. 이러한 과정을 기억해 보면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이해함.
18.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 요청 : 나는 혼자가 아님을 인식함. 나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는 데 기다려야 함을 인식함.
19. 새로운 삶의 목적 생김 :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함.
20. 심리적 해방감 : 과도한 죄의식과 후회로부터 벗어나며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낌.

부 록 2

용서빌기 척도

우리는 종종 가정, 학교,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를 주었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이 불공평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그 행동에 대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동안 어떤 사건이었는지 떠올려 본 후에 이 질문에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1. 당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다른 친척
 ④ 학교친구 ⑤ 이웃친구/학교이외에서 만난 친구 ⑥ 기타 _____ (적어주세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3. 당신은 그 사람에게 사과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당신은 당신이 한 잘못을 보상하려고 노력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당신은 왜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당신은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모르겠다
 ④ 용서했을 수 있다 ⑤ 확실히 용서했을 것이다
 8.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해주시기를 원합니까?
 ①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② 원하지 않는다 ③ 모르겠다 ④ 원한다 ⑤ 확실히 원한다
 9. 당신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① 전혀 빌고 싶지 않다 ② 빌고 싶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빌고 싶다 ⑤ 확실히 빌고 싶다

※ 앞에서 기술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각 문장별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답지에 표시해 주십시오(예시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때때로 그렇다	항상 확실히 그렇다
1.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그 사람의 고통을 느낀다.			
6. 나는 그 사건 이후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다.			
7. 나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를 이해한다.			
13. 나는 그 사건으로 생긴 정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용서를 빌기 위해서 혼자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7. 나는 그 사람에게 나를 용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다.			